

“안전 없는 화력발전소 건설 불가”

정읍그린파워, 산단 내 공사 재개 대기환경 오염 건강권 침해 우려 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방침

정읍시가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가처분 방침을 밝히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읍시는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화력발전소 공사 강행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그린파워가 정읍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공사를 일방적으로 재개한 데 대해 시민의 생존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이날 “그동안 시는 시민과 함께 수차례 공사 중지를 권고해 왔고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도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며 “그럼에도 업체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재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이오SRF 고행연료 사용과 관련된 허가 과정의 문제점 주민설명회의 진위 논란, 당초 순수



이학수 정읍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화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강경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읍시 제공>

우드칩 사용 약속 파기 등의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시민 수용성 없이 강행되는 공사가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0년 승인 당시 부여한 ▲환경피해 방지 ▲정읍시·지역주민과의 협의 이행 ▲민원 대응 등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에 해당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12월 말로 예정된 개발계획 연장 또한 면밀히 재검토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시는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법원에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사와 관련된 후속 행정허가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시는 이번 사안이 시민의 삶과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공사의 부당성을 따져나갈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내년 시책 정비 ‘예산 효율성’ 높인다

신규·일몰 사업 적정성 검토...예산 반영 여부 결정 후 추진

남원시가 미래 10년을 여는 전략적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시책과 일몰시책을 발굴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남원시는 지난 4일 남원시청에서는 이성호 부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규 및 일몰시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시는 보고회에 앞서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쳐 발굴한 총 78건의 신규시책을 공유하고 사업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시책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싱

크홀 예방 목적의 수도관 누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노후 맨홀뚜껑 교체사업 ▲우리동네 화재제로 프로젝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빗물받이 위치확인 체계 구축 등이 반영됐다.

또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곤충산업 유통 활성화 사업 ▲외국인 통합지원 거점센터 구축사업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남원시 관광상품권 서포터즈 운영 등이 검토됐다.

이와 함께 시민 행정 편의성 도모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원스톱 민원콜센터 구축 ▲민원실 지

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구축 ▲스마트경로당 연계 비대면진료 추진 ▲춘향관 디지털 리뉴얼 사업 ▲폐교 활용 귀농귀촌 복합주거시설 조성 ▲찾아가는 스마트팜 복합단지 상담소 운영 등이 논의됐다.

시는 발굴된 신규시책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정책효과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핵심 시책을 선별한 후 2026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 “무더진 칼날 갈아드립니다”

9개 읍·면 50여개 마을서 주방용 식도 연마 봉사...11월까지 운영

남원시가 지난달부터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칼날연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달 운봉읍을 시작으로 총 9개 읍·

면, 50여개 마을에 대해 1200여개의 주방용 식도 등 칼날을 연마했다. 이달에는 보절면으로 시작해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 추진하는 칼날연마사업은 개인이 직접 칼을 연마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체에 해로운 금속가루(알루미늄·납 등)를 최소화해 주민들이 중금속 중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와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원시 현실에 맞는 현장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러시아서 온 멧쟁이 ‘알락꼬리마도요’

고창군 ‘고창갯벌 이달의 새’ 선정...세계적 멸종위기종

고창군이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iensis·사진)’를 선정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러시아 북부(시할린섬, 캄차트카반도)에서 번식한 뒤 남쪽으로 2만5000km를 날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장거리 이동 철새로 고창갯벌을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삼아 휴식과 먹이활동을 하며 에너지를 보충한다.

특히 이 대형 도요새는 길게 휘어진 부리와 긴 다리를 이용해 갯벌 속 칠게를 주적으로 사냥한다.

알락꼬리마도요의 부리는 칠게 서식굴과 유사한 깊이와 각도를 가지고 있어 굴에 숨은 칠게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최적화된 형태를 자랑한다.

8월부터 고창갯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먹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한 뒤 10월이 되면 다시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동한다.

이 종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다.

지난 30년간 호주에서만 개체 수가 82%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위기(EN)’ 등급으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갯벌은 전 세계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라며 “앞으로도 철새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걸맞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풀고구마 ‘카스타드·마가렛트’ 나온다

군·행안부·롯데웰푸드, 상생발전 협약...계절 한정 제품 13개 생산



지난 4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 열린 고창군,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 간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심덕섭(왼쪽 세번째)군수와 김민재(왼쪽 네번째) 차관, 배성우(왼쪽 다섯번째)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롯데제과의 인기 제품인 ‘카스타드’와 ‘마가렛트’에 고창에서 생산된 풀고구마가 사용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고창 웰파크호텔에서는 심덕섭 군수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롯데웰푸드 배성우 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군과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과 롯데웰푸드는 행안부의 지원 속에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특화 제품 출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고창 대표 특산물 인지도 제고 ▲롯데웰푸드 브랜드를 연계한 고창군 관광객 유치 및 국가유산 홍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도내 최대의 고구마 산지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고창 고구마는 일명 ‘풀고구마’라고

불릴 정도로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장점이다.

롯데웰푸드는 카스타드, 마가렛트, 찰떡파이, 말랑카우, 빈츠, 아몬드볼, 찰떡아이스 등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올가을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계절 한정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패키지에 ‘고·참(창) 풀맛이구마’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삽입해 달콤한 고창 풀고구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수도권에서 고창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부스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창 현지에서는 선운산, 고창읍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과 연계한 샘플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명 카페들과 협업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